

카프로, 유상증자 발표로 “승승장구”

경영권 분쟁보다 자금난 해소 가능성 무게 ... 카프로락탐 수급완화도

카프로가 16년만에 191억원의 유상증자 결의를 발표한 이후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증권거래소의 감리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6일째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동시에 카프로의 대주주인 코오롱과 효성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것인가, 혹은 긍정적인 관점의 자금난 해소에 귀결된 것인가 하는 2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6월4일 거래소시장에서 카프로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일찌감치 가격 제한폭인 2855원까지 뛰어올라 상한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날인 5월27일 종가에 비해 2.3배나 폭등했다.

카프로가 급등하고 있는 데는 뚜렷한 재료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카프로 측도 6월2일 조희공시에서 “급격한 주가 상승세를 초래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을 정도이다.

다만, 6일째 상한가를 기록한 6월4일 오전 10시40분 현재 거래량이 54만주 이상으로 전날의 1만1000여주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등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다.

카프로의 대주주는 주력 생산제품인 카프로락탐의 최대 수요기업인 효성(20.38%)과 코오롱(19.24%)이다.

카프로 측은 증자대금을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과 공장증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경쟁에 무게를 두고 투자에 접근하기보다는 카프로락탐 수급 완화와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카프로의 유상증자 배경에는 4000억원을 투입해 2004년 하반기부터 가동되는 카프로락탐 공장건설 자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카프로는 한해 12만톤 가량 생산되고 있는 카프로락탐을 2004년 하반기부터 24만톤으로 늘리기 위해 2차 설비증설을 단행하고 대규모 자금을 꾸준히 투입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2003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3년 매출은 2061억원, 영업손실은 180억원, 순손실은 295억원을 나타냈다.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영업이익마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카프로를 주요 주주이며 수요처인 효성과 코오롱이 유상증자를 통해 긴급구조에 나서는 차원으로 보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또 카프로는 효성, 코오롱, KP케미칼 등 안정적인 수요처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업황개선 주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계기로 효성과 코오롱 등이 지분을 장기 소유하면서 거래량이 적었던 수급문제가 다소 해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7>